

전문의 8% 구체적 (안) 궁금해



민성진 회장
전국치과대학생연합회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하여 힘써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이 요구하였던 많은 원칙들이 지켜진 것에 대하여 학생들은 매우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종안의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좀 더 세부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전문의를 8%이내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한 해 배출되는 500명의 치과의사중 8%인 40명을 어떤식으로 선발할 것이며 각 학교별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질문하자면

- 1) 8%를 지킬수 있는 법적 제제가 있는지
- 2) 한해 배출되는 8%의 인원이 10개 과에 골고루 분포되어 지는지, 혹 그렇지 않다면 교정이나 보철 등 인기과에 전문의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어떤식으

로 예방할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두번째로

수련의 모집인원은 현재처럼 제한을 두지 않되 전문의는 소수인 8%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면

1) 전문의가 되는 수련과정과 전문의가 되지 못하는 수련의를 뽑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만약 두 수련과정이 다르지 않다면 전문의와 수련과정을 거친 일반의의 차이는 명칭의 차이 뿐인데 이는 국민(환자)에게 신뢰감을 잃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 수련의 지원의 부족으로 대학병원의 수련의 부족 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청중들이 연자의 발표에 귀기울이고 있다.